주간브리프
WEEKLY ISSUE BRIEF 2026. 11. 9. Vol. 44

세계 경제 동향

세계은행, 2026년 원자재 가격 23% 상승 전망…에너지 32%↑ ▌'26-10-28 세계은행

- 세계은행은 10월 「원자재시장 전망」에서 2026년 원자재 가격이 23% 오른 뒤 2027년 7% 하락할 것으로 전망. 에너지 가격은 3년 연속 하락에서 반전해 32% 상승하고, 브렌트유는 2025년 배럴당 69달러에서 2026년 91달러, 2027년 79달러로 전망
  - 식량 가격은 곡물 수송 차질, 엘니뇨, 연료·비료 가격 상승으로 2026년 약 10%, 2027년 7% 올라 누적 18% 상승할 전망이며, 비료 가격은 2026년 14% 오른 뒤 2027년 2025년 수준으로 회귀
  - 세계 석유 공급은 2026년 5.2% 감소해 2020년을 제외하면 40여 년 만의 최대 감소폭. 중동 분쟁 격화·흑해 곡물 수송 공격·강한 엘니뇨가 겹치면 2027년 브렌트유가 105달러 수준으로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

❖ 연료·비료 가격 상승이 식량 가격으로 전이되는 경로가 확인된 만큼, 내년 농자재 수급과 생산비 대책 점검 필요

미국 중간선거 민주당 상·하원 장악…트럼프 임기 후반 입법 교착 전망 ▌'26-11-3 CNBC

- 11월 3일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제동
  - 민주당은 예산조정 절차를 통해 당론 법안을 추진할 수 있으나, 대통령 거부권에 막혀 실제 입법보다는 2028년 대선을 앞둔 정책 홍보 수단에 그칠 전망. 또한, 민주당은 상임위원회 소환권을 활용해 백악관과 정부와 협력해 온 기업에 대한 조사에 나설 전망이며, 의회 교착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활용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

❖ 관세 등 미국 통상정책 변화가 농산물 교역에 미칠 영향 점검 필요

국내 경제 동향

10월 소비자물가 2.8% 상승…농축수산물은 1.7% 하락 ▌'26-11-3 국가데이터처

- 10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20.73(2020=100)으로 전월대비 0.2%, 전년동월대비 2.8% 상승해 전월(2.9%)보다 오름폭이 0.1%p 축소
  - 품목성질별로 농축수산물은 전년동월대비 1.7% 하락. 공업제품은 석유류 상승(14.9%)을 중심으로 4.4% 상승
  - 농산물은 채소류(-11.2%)를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7.5% 하락(상추 -44.3%, 오이 -39.5%, 사과 -13.4%, 배추 -11.8%)한 반면 축산물 4.8%(국산쇠고기 9.1%), 수산물 5.4%(갈치 11.9%) 상승

❖ 채소·과일은 크게 내리고 축산물·수산물은 오르는 품목 간 차별화가 뚜렷한 만큼, 평균 지표가 아닌 품목별 수급 대응 필요

9월 경상수지 614.6억달러 흑자…반도체 수출 260.3% 증가 ▌'26-11-5 한국은행

- 9월 경상수지는 614.6억달러 흑자를 기록했으며, 1~9월 누적 흑자는 3,406.6억달러(전년 동기 838.9억달러)
  - 상품수지는 수출이 1,307.2억달러로 전년동월대비 92.4%, 수입이 679.7억달러로 29.4% 늘어 627.5억달러 흑자. 통관 기준 반도체 수출은 605.0억달러로 260.3% 증가한 반면 승용차(-5.6%)·자동차부품(-8.1%)은 감소
  - 통관 기준 원유 수입액은 79.6억달러로 38.4% 증가했고, 도입단가는 배럴당 98.0달러로 34.5% 상승

❖ 대규모 흑자가 원화 강세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농식품 수출 채산성과 수입 농자재 가격에 미치는 영향 점검 필요

세계 농업·농정 동향

OECD, 농업 지원 2년 새 15% 증가…사후적 대응 벗어나야 ▌'26-11 OECD

- OECD는 「농업정책 모니터링·평가 2026」에서 56개국의 농업 총지원이 2025년 9,500억 달러 이상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해 2023년보다 1,210억 달러(약 15%) 늘었다고 발표. 생산액 대비 지원 비중도 17.6%에서 19.1%로 높아져 수십 년간의 하락 추세가 반전
  - 호르무즈 해협 폐쇄 등 잦아진 충격에 각국 대응이 사후적·단기적 조치에 머물러, 2023~25년 지원의 절반 가까이가 가장 왜곡적인 형태로 제공. 반면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연 1.8%(1991~2000)에서 0.8%(2014~23)로 둔화되고, 일반서비스 지출은 생산액 대비 4.6%(2000~02)에서 2.4%(2023~25)로 축소
  - 우리나라 생산자지원(PSE)은 농가수취액 대비 41.5%(2023~25)로 OECD 4위이며, 시장가격지지가 생산자지원의 85%를 차지. OECD는 품목별 지원을 소득·환경 성과와 연계한 지급으로 전환하고, 사후적 재해 대응에서 선제적 기후적응 전략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

❖ 시장가격지지 중심 구조에 대한 개편 권고가 이어지는 만큼, 가격안정제 등 최근 도입된 가격 연동형 지원이 권고 방향과 부합하는지 검토 필요

국내 농업·농정 동향

가을배추·무 풍작…김장재료 수급안정대책 발표 ▌'26-11-3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해수부는 「2026 김장재료 수급안정대책」을 발표. 가을배추·무 생산량은 양호한 기상 여건으로 전년보다 각각 18.5%(121.4만 톤), 11.1%(37.2만 톤) 늘어 공급이 충분할 전망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에서 김치를 직접 담그는 가구 비율은 58.6%로 전년(64.2%)보다 5.6%p 줄어, 김장배추 수요는 지난해(64.2만 톤)보다 9.1% 감소한 58.3만 톤으로 추정
  - 정부는 11월 9일~12월 6일 배추 4.65만 톤·무 9천 톤을 사전 확보하고, 역대 최대인 640억 원을 투입해 농산물 최대 40%, 수산물 최대 50% 할인 추진. 가격이 하락한 오이·애호박·토마토·파프리카·샤인머스켓도 할인 대상에 포함

❖ 공급 증가와 김장 수요 감소가 겹쳐 가격 약세가 예상되는 만큼, 산지 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 소득 영향과 소비 촉진 효과 점검 필요

농식품부, 제4차 농식품규제 합리화 전략회의…5개 분야 50개 신규 과제 선정 ▌'26-11-6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11월 6일 장관 주재로 업계·민간 전문가 20여 명과 제4차 농식품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열어 에너지 전환, 국가전략산업, 농정 대전환, 동물복지, 민생규제 5개 분야 50개 과제를 신규 선정
- (농지) 관행적 임대차 등 농지법 위반 사항을 정비하는 「특정농지등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며, 10월 31일까지의 위법 사항은 3년간 처분을 유예하고 임대차 허용범위 확대 등으로 적법 상태로 전환
- (농가 안전망) 농작물 재해보험 미운영 품목 농가를 위한 선택형 준보험 도입을 추진하고, 가축처분 보상금 최소 지급률을 20%에서 30%로 상향
- (기타) 영농형 태양광을 농업법인 사업범위에 포함하고 소규모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며, 제출서류 450종 중 절반 이상을 정비

❖ 선택형 준보험 도입과 가축처분 보상금 상향 등 농가 안전망 확충 과제의 설계 방안과 재정 소요를 분석할 필요